

## 이현호 선교사의 주간소식지(2025/2-1)

201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몇 달에 한 번씩 기도편지를 써 왔습니다. 기도편지를 쓰고 나면 후원교회와 후원자님들께 더 자주 소식을 전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속제하지 않은 학생과 같은 부담감만 느낀채 소식을 잘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에 한번씩 이 땅 대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생각들을 편하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도 부담이 없고 후원자님들과의 소통도 좋을 것 같아 감히 이렇게 시도해 봅니다.

최근에 저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12월과 1월에 세 교회 단기팀을 받았습니다. 이제 2월이 되어서 잠시 멈추었던 성경공부 모임을 이번주부터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가정교회 목장모임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성경공부도 함께 했고 목장모임도 함께 하자고 했던 분이 얼마전부터 다른 교회에 예배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만에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통해 그 분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분을 통해 전도 되었던 노부부가 최근에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목장 모임에 나오시겠다고 했기에 그 분의 문제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 말로는 다른 교회의 주일예배와 우리 교회의 평일 모임은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시는데 꾸준히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공부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드렸고 그 이후 대화는 없습니다. 이제 이를 후면 목장 모임을 시작하기로 한 날인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평소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는 설교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설교를 점점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저런 생각중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부족하기에 설교 준비도 어렵고 은혜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기는 이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5.2.3

대만 타이베이 이현호 선교사